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된 로웰의 조선관련 사진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A Study of Lowell's Photographic Materials of Chosŏn

Archived in Putnam Collection Center

정영진(Jeong, Youngjin)*

1. 머리말
2. 퍼트남자료관의 소장자료
3. 퍼트남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로웰의 조선관련 사진자료의 분석과 오류수정
4.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된 로웰의 조선관련 사진 아카이브의 문제점
5. 맺음말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 투고일 : 2019년 03월 25일 ■ 최종심사일 : 2019년 04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04월 15일

■ 기록학연구 60, 239-281, 2019, <https://doi.org/10.20923/kjas.2019.60.239>

〈초록〉

미국인 퍼시발 로웰은 최초로 사진기를 가지고 1883년에 조선에 정식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고종의 사진을 비롯한 80여장의 사진자료를 남겼다. 이 사진자료들은 모두가 한국의 사진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귀중한 역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다. 이 사진에 관련된 자료들은 대부분 미국에 소장되어 있는데, 사진과 관련된 정보는 많은 오류와 함께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책자와 연구자들에 의해서 오·인용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사진자료의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는 미국의 퍼트남자료관의 로웰의 조선관련 사진 아카이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오류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주제어 : 퍼시발 로웰, 조선시대 사진, 퍼트남자료관, 보스턴미술관, 옛 사진 아카이브

〈Abstract〉

Percival Lowell was the first foreigner who came into Korea with a camera in 1883 and left about 80 of photographic materials. The materials have not been studied even though all of them are the only and first in the history of Korea. Most of the materials archived by Putnam Collection Center in America are offered on-line with wrong explanations and referred by writers and researchers. So that I studied the contents of the photographic materials and suggest corrected explanations to the Center.

Keywords : Percival Lowell, old photographs of Korea, Putnam Collection Center, Boston Museum of Fine Art, archive of old photographs

1. 머리말

퍼시발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 이후, 로웰)¹⁾은 보빙사(報聘使)²⁾의 방미활동에 참여한 미국인이다. 로웰은 보빙사의 일원으로서 활약한 공을 인정받아 고종의 손님으로서 1883년 12월부터 1884년 3월까지 조선에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로웰은 부산의 초량 포구를 포함하여 서울 안팎의 다양한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했는데 그 중 80여 가지의 사진자료³⁾들이 남아있다. 로웰은 공식적으로 사진기를 가지고 서울에 입성한 최초의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로웰이 촬영한 사진들은 모두가 한국 사진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1880년대 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희귀한 자료들이다.

로웰은 미국으로 귀국한 뒤, 조선에 머물던 시기의 경험과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바탕으로 해서 쓴 『CHOSŌN, THE LAND OF MORNING CALM, A SKETCH OF KOREA』(이후, 『CHOSŌN』)(Percival Lowell 1886)을 출판했다. 그 결과 조선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수식어와 함께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CHOSŌN』은 여행기와 문화인류학적 연구가 혼합된 내용의 책인데, 초판본에는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25장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⁴⁾ 이 책은 조경철에 의해서 번역되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이후, 『조선』)로 출판되었다.⁵⁾ 『조선』에는 『CHOSŌN』에 수록된 사진들과는 일부가 다른,

-
- 1) 미국 현지의 발음은 ‘퍼시벌 로웰’에 가깝지만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퍼시발 로웰로 표기하겠음. 19세기 미국 보스턴의 전통적 상류사회 출신으로서 자본투자가, 여행가, 동양문화연구가 및 천문학자로 활동했다.
 - 2) 조선이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을 맺은 뒤 미국에 파견한 외교사절단.
 - 3) ‘사진자료’로 표기하는 이유는 인화된 사진 외에 유리건판, 환등기용 랜턴슬라이드 등이 섞여있기 때문이다.
 - 4) 1886년 같은 해에 출판된 2판본에는 23장, 1888년에 출판된 3판본에는 6장만이 수록되었다.
 - 5) 이 책은 훗날 축약·편집되어 『내 기억의 조선, 조선 사람들』(조경철 2001)로 출판되었다.

조경철이 로웰천문대에서 확인한 로웰의 사진 28장이 책 앞부분에 수록되었다.

한편, 미국의 보스턴미술관에는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 60장이 소장되어 있는데,⁶⁾ 이 사진들에 대해서는 2004년에 한국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그 목록만을 간단히 정리한 적이 있다. 이 사진들은 로웰이 1884년에 미국으로 귀국한 뒤에 자신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를 보스턴 아마추어사진가협회에 제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진들이다. 그러므로 이 사진들에 대한 설명문은 로웰이 직접 작성한 설명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선에 대한 로웰의 지식이 완벽하지는 않았고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남겨 놓지 않았기 때문에 보스턴미술관이 제공하고 있는 사진에 대한 설명문 역시 그 내용에 오류가 적지 않다.⁷⁾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들 중에서 특별히 고종의 사진에 대한 연구(권행가 2005; 최인진 2010)가 수행된 바는 있지만,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 전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로웰의 사진은 국왕에서 물지게꾼까지 그리고 왕궁에서 쇠락한 불교사찰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을 품고 있지만, 이 사진들의 촬영정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웰의 사진들은 조선의 옛 모습에 대한 여러 연구와 책자에서 잘못된 설명과 함께 인용·수록되고 있다.⁸⁾ 이에 필자는 『CHOS ÖN』의 초판본에 수록된 사진설명문 및 책의 내용, 로웰의 서간문,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로웰의 사진설명문 등을 분석하여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들의 촬영장소와 대상 등을 비정했다.⁹⁾ 그리고 그 결과를

6) https://www.mfa.org/search?search_api_views_fulltext=percival%20lowell.

7) 이 사진들에 대한 연구는 필자가 추후 발표할 논문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된 로웰의 조선관련 사진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에 정리되어 있다.

8) 대표적인 예로서 『사진으로 본 백년 전의 한국 : 근대 한국(1871~1910)』(김원모, 정성길 1997)을 들 수 있는데, 이 책에 수록된 로웰의 사진 11장에 대한 설명은 모두 잘못되어 있다.

바탕으로 해서 퍼트남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로웰의 조선 관련 사진자료의 관리와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자료의 설명문의 오류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2. 퍼트남자료관의 소장자료

로웰이 촬영한 조선의 사진자료가 가장 많이 소장된 곳은 미국 아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Flagstaff)에 있는 로웰천문대의 퍼트남자료관(Putnam Collection Center)¹⁰⁾이다. 퍼트남자료관은 로웰천문대의 천문학관련 자료실 겸 로웰의 유물 보관실로 운영되고 있다.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퍼트남자료관은 한 쪽 공간은 천문학관련 서적과 천문관측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도서실이고 다른 공간은 로웰의 유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 로웰은 삶의 대부분을 천문학 연구에 바쳤기 때문에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의 대부분은 로웰의 천문관측자료와 천문학에 관련된 원고들이지만, 로웰이 대학교 시절에 쓴 논문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서간문 그리고 일본문화와 관련된 초별원고와 같은 유물들도 있다.

퍼트남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과 관련된 자료는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과 관련된 자료와 서간문, 『CHOSŌN』의 재출판과 관련된 초별원고 한 편 등이 있지만, 본고의 연구 대상은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과 관련된 자료에만 한정하겠다.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과 관련된 자료들 중에는 음화유리건판과

9) 필자가 로웰의 사진을 비정한 방법과 결과는 추후 발표예정인 「퍼시발 로웰의 서울 사진에 대한 고찰」에 정리되어 있다.

10) 퍼트남(William Lowell Putnam, 1861~1923)은 로웰의 자산관리자이자 로웰의 여동생의 남편이며 로웰천문대의 운영관리자였다. 이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로웰의 사진자료는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

인화된 사진 그리고 양화유리건판과 랜턴슬라이드(lantern slide : 환등기용 양화유리건판)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의 해상도는 매우 뛰어나지만, 일부 자료들이 손상되거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한 상태이다. 또한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에 대한 정보 역시 허술하게 부연된 상태로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퍼트남자료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로웰의 조선관련 사진자료들의 같은 내용의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보스턴미술관의 사진의 설명문과 그 내용이 다른 것들이 있기도 하다. 또한 사진자료의 설명이 잘못되어 있거나 조선이 아닌 일본에서 촬영된 사진까지 뒤섞여 있기도 하며, 심지어 사진의 좌우가 뒤집혀서 게시되어 있기도 하다.

3. 퍼트남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로웰의 조선관련 사진자료의 분석과 오류수정

본고에서는 퍼트남자료관이 제공하는 사진 아카이브 자료들 중에서 조선에 관련된 사진자료¹¹⁾에 대해서만 언급할 것이다. 이 사진자료들은 로웰천문대 웹사이트의 ‘Research Resources’-‘Library and Archives Catalog’-‘Historical Photos’에서 ‘Subject’항목에 ‘korea’와 ‘seoul’ 그리고 ‘japan’으로 검색하면 청구번호(call_num)가 부여된 것들로 검색된다. ‘korea’로 검색하면 67개의 사진자료가 검색되는데 이 중에 2개는 보빙사 일행을 뉴욕에서 촬영한 동일한 사진을 설명만 다르게 기술한 것이고, 또 다른 2장은 조선이 아닌 일본에서 촬영된 일본과 관련된 사진이다. ‘seoul’로 검색하면 10장의 사진자료가 검색되는데 모두가 ‘korea’로 검색한 사진자료와 중복되는 것들이다. ‘japan’으로 검색하면 일본관련 사진자료들이 338장 검색되는데 이 중에 보빙사의

11) 퍼트남자료관 웹사이트에서 ‘korea’로 검색되는 사진자료들.

모습을 뉴욕에서 촬영한 유리건판 1장과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 1장이 섞여 있다. 한편, 본고에서 로웰의 사진을 분석하는데 참고한 보스턴미술관 소재 로웰의 사진들은 보스턴미술관 웹사이트의 사진자료항목에서 'lowell'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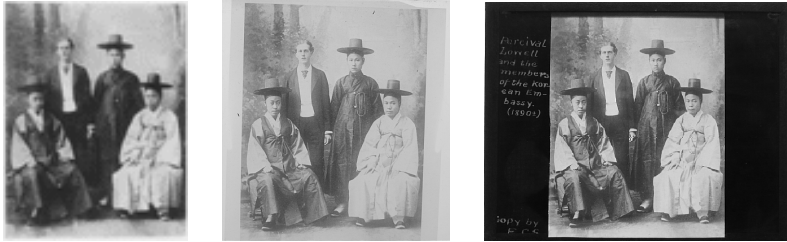
로웰은 조선을 칭할 때 chosun, chosön, korea, corea를 혼용해서 사용했다. 퍼트남자료관과 보스턴미술관의 아키비스트들 역시 로웰의 사진자료에 대한 설명에 위와 같은 국명을 혼용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고에서 위 국명들을 한역할 때에는 '조선'을 사용할 것이다.

퍼트남자료관의 웹사이트는 로웰의 사진자료를 모두 스캔하여 이미지 형태로 게시하고 있는데, 그 부연설명에 유리건판 또는 랜턴슬라이드가 존재하는 것, 유리건판이 분실된 것, 사진만 존재하는 것 등으로 자료의 형태를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2016년 7월에 퍼트남자료관을 방문했을 때에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자료들 중에서 인화된 사진 2장과 유리건판 3장 그리고 38장의 랜턴슬라이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퍼트남자료관이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 로웰의 조선관련 사진자료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소항목의 순서는 웹사이트에서 'korea'로 검색했을 나열되는 순서를 따랐다. 그리고 소항목 제목의 첫 부분은 퍼트남자료관 자료의 청구번호(call_num)이고 영문설명문은 자료관이 게시하고 있는 자료 설명(content)이다. 영문설명문에 '?'로 표시된 것은 사진자료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자료관 측의 표기이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들은 모두 다양한 형태의 사진자료를 스캔한 디지털이미지이므로 본고에서 '자료' 또는 '이미지'로 통칭하겠다. 특별한 설명이 추가되지 않으면 사진자료의 형태(description)는 '5인치 × 8인치의 흑백 유리건판(b&w 5 × 8 glass negative)'으로 인화된 사진이다.

1) 0035 : Percival Lowell and the three head members of the first Korean diplomatic delegation to the US, 1883



‘퍼시발 로웰과 최초의 대미(對美) 조선외교사절단의 세 주요 수장들, 1883년’이라는 설명의 이 자료는 보빙사의 주요 인물들을 촬영한 것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민영익(閔泳翊, 1860~1914), 로웰, 서광범(徐光範, 1859~1897) 그리고 홍영식(洪英植, 1856~1884)이다. 이 자료는 로웰에 의해서 조선에서 촬영된 것은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의 사진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자료들과는 다르게 이 자료의 음화유리건판의 크기는 5인치 × 7인치이다. 필자는 퍼트남자료관에서 정리되지 않은 수장고를 뒤져서 이 자료의 양화유리건판을 2장 확인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사진 또는 유리건판을 1회 이상 복사한 양화유리건판이었다. 그 중 한 장의 옆면에는 촬영날짜를 ‘1890년 전후’로 표시하고, ‘F C S’에 의해서 복사되었다는 표시가 있었다.

2) 1000 : Family in front of Korean house : Japanese cook?



‘조선식 집 앞의 가족 : 일본인 요리사 가족?’이라는 설명의 이 자료는 일본인 요리사 가족이 아니라 조선 최초의 영어교육기관인 동문학(同文學)의 교사인 헬릭팩스(Thomas Edward Hallifax, 1832~1908), 그의 처와 딸 그리고 세 명의 시종들을 촬영한 것이다.

안락의자에 누워 있는 인물이 헬리팩스이고 문가에 서 있는 여인이 헬리팩스의 처,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가 딸이다. 헬리팩스는 조선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일본여인과 결혼하여 딸을 하나 두었다. 퍼트남자료관의 아키비스트가 사진 속의 헬리팩스를 무시하고 일본인 처와 그 앞의 일본인 남성 시종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일본인 가족으로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설명문을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된 같은 내용의 사진의 설명(Foreign teacher with his Japanese wife and Eurasian children with servants in their home, formally a temple)¹²⁾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3) 1004 : Korean woman, a female shaman



‘한국의 무녀(巫女)’라는 설명의 이 자료는 조선의 무당이 아닌 일본 신사(神社)의 무녀인 미코(みこ)를 촬영한 것이다. 설명문을 ‘Japanese woman, a female shaman’으로 수정하고, 분류도 일본에서 촬영한 것으로 정정해야 할 것이다.

4) 1007 : Western and Korean man standing on street



‘길에 서 있는 서양인과 조선인’이라는 설명의 이 자료는 초대 주조미국공사인 푸트(Lucius Harwood Foote, 1826~1913)와 홍영식을 촬영한 것이다. ‘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tiary (Korea) Lucius Harwood Foote and Hong Yeong-sik at U.S. Legation’로 정정해야 할 것이다.

12)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foreign-teacher-with-his-japanese-wife-and-urasian-children-with-servants-in-their-home-formally-a-temple-nricp-relic-no-2868-417792>

5) 1008 : Korean official in court costume



‘궁정예복을 입은 조선의 관리’라는 설명의 이 자료는 홍영식의 부친인 영의정 홍순목(洪淳穆, 1816~1884)을 촬영한 것이다. 홍순목의 집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설명문에 ‘the prime minister Hong Soon-Mok’이라는 설명을 보충하면 좋을 것이다. 이 자료와 같은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¹³⁾ 한편, 이 자료는 퍼트남자료관의 웹사이트에서 ‘japan’으로 검색하면 ‘청구번호 2012.0548’의 자료가 ‘일본 절의 일본인들’이란 설명과 함께 검색되기도 한다. 이것은 퍼트남자료관의 자료분류 실수이다.

6) 1009 : Korean officials



‘조선의 관리’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5) 1008’과 같은 내용의 것인데 콘트라스트와 주변 인물들의 자세가 다르다. 즉, 두 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촬영한 것이다. 로웰은 홍영식을 각별하게 생각했으므로 그의 부친모습을 촬영하면서도 정성을 다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7) 1010 : His Majesty, The King of Korea, “Ko jung”

‘조선의 국왕전하, “고종”이라는 설명의 이 자료는 1884년 3월 10일에 로웰이 창덕궁의 농수정(濃繡亭)에서 촬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⁴⁾ 로웰은

13)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his-majesty-the-prime-minister-of-korea-nricp-relic-no-2911-417766>

14) 분석결과는 『현대사진영상학회 논문집』, 2019, VOL.20-3호에 게재예정인 필자의 「최초의 고종 여사진에 대한 고찰」에 정리되어 있다.



고종의 사진을 모두 6장 남겼는데 이 사진은 노출조정에 실패한 사진이다. “Ko Jung”을 “Go Jong”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8) 1012 : The Crown Prince of Korea, who is a young boy of about 10 years, Soon jong



‘10세 정도의 조선의 왕세자, 순종’이라는 설명의 이 자료 역시 ‘7) 1010’과 같은 날 촬영된 것이다. 당시의 사진기의 셔터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의 부산했을 왕세자를 촬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설명문에 ‘Soon Jong’

이라는 시호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건데, 이 자료의 설명문을 작성한 아카비스트는 한국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9) 1013 : His Majesty, the King of Korea, Ko jung



‘조선의 국왕전하, 고종’이라는 설명의 이 자료 역시 앞의 자료들과 같은 날짜에 촬영한 것으로서, 인화과정에서 실수했거나 보관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와 같은 내용의 양질의 사진이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

다.¹⁵⁾ ‘Ko jung’을 ‘Go Jong’으로 수정하고 ‘Nong Soo pavilion, Chang Deok

15)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his-majesty-the-king-taken-in-a-summer-house-of-the-new-palace-nricp-relic-no-2878-417808>

Palace'라는 설명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10) 1014 : School group in Korea



‘조선의 학생들’이라는 설명의 이 자료는 동문학의 학생들과 영국인 교사 헬리팩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동문학의 건물과 학생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진이다. 이 자료와 내용이 같은 보스턴미술관 소재의 사진에는 미혼자 학생과 기혼자 학생을 구별하는 설명이 붙어 있으므로¹⁶⁾ 그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11) 1016 : Korean man standing against wall by tree



‘담장을 배경으로 나무 옆에 서있는 조선인’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조선인 일본어 통역관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¹⁷⁾을 참조하면 이 인물은 로웰을 수행하던 2명의 조선인 일본어 통역관 중의 한명이다. 설명문에 ‘a Korean interpreter into Japanese’라는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12) 1018 : Rural Korean (?) scene

‘조선(?)의 교외 풍경’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임오군란 때 불에 탄 일본영사관과 그 앞의 연못인 서지(西池)를 촬영한 것이다. 일본영사관으로 사

16)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the-foreign-school-english-arithmetic-etc-begun-in-august-83-members-with-hats-are-married-those-without-are-unmarried-taken-in-front-of-school-house-nricp-relic-no-2867-417828>

17)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korean-interpreters-into-japanese-nricp-relic-no-2899-417785>



용하던 청수관(淸水館)은 불타 없어지고 정문과 오른쪽의 천연정(天然亭) 등의 부속건물들만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는 현재 동명여자중학교가 들어서 있다.

설명에 물음표를 첨가한 것으로 판단하건데, 아키비스트가 자료를 정리할 당시에는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자료들이 특별히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이 자료와 내용이 같은 양질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¹⁸⁾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사진의 설명(Site of Japanese Legations where the massacre took place)으로 설명문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13) 1019 : Korean family outside their house



‘집 밖의 조선인 가족’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로웰이 촬영한 사진들 중에 유일하게 조선 민가의 여인들의 얼굴이 촬영된 것이다. 로웰은 보수적인 조선사회에서 여성들의 외부출입이 자유롭지 않다는 사정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때의 어려운 상황을 『CHOSŌN』에 여러 번 묘사했다(Percival Lowell 1886, 188, 312-314).

14) v222 : Clowns with drum in front of building entryway

‘건물입구 앞에서 북을 든 광대들’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로웰이 윤치호 등과 화계사에 놀러갔을 때(송병기 2001, 86) 거느리고 간 놀이패를 촬

18)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site-of-japanese-legations-where-the-the-massacare-took-place-nricp-relic-no-2920-417783>



영한 것이다. 이 자료는 화계사에서 둘째 날 오후에 촬영된 것인데, 그 촬영과정이 『CHOSŌN』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Percival Lowell 1886, 374).

이 자료는 색깔과 좌우가 바뀐, 좌우가 트림(trim)된 등으로 판단하건데,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같은 내용의 사진¹⁹⁾을 복사한 랜틴슬라이드를 뒤집어서 스캔한 이미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필자는 이 자료와 같은 내용의 랜틴슬라이드가 존재함을 퍼트남자료관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퍼트남자료관의 부연설명에는 유리건판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분류상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설명문을 보스턴미술관의 사진설명문(Character performance and musician in the inner court of a monastery)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15) v223 : Korean crowd on a wide street in Seoul



‘서울의 큰 길의 조선 군중들’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고종의 행차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군중을 촬영한 것이다.²⁰⁾ 로웰은 『CHOSŌN』에 종각 앞 광장 한편에는 이곳에서 유

일한 2층 건물이 한 채 있다고 기술했으므로(Percival Lowell 1886, 97), 촬영각도를 고려할 때 이 자료는 그 건물의 2층이나 종각 근처의 어느 건물 지붕에서 낙산 방향을 바라보며 종로에 모인 사람들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

19)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character-performance-and-musician-in-the-inner-court-of-a-monastery-nrip-relic-no-2918-417790>

20) 이 사진을 ‘1898년 7월7일의 전차기공식’이라고 잘못 설명한 책도 있다(김원모, 정성길 1997, 129).

된다. 이 자료와 내용이 같은 사진이 ‘Crowd collected to witness the passing of the King’이라는 설명과 함께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²¹⁾

16) v224 : Korean children on hillside above village



‘마을 위 언덕의 조선인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로웰이 남산에 올라가서 봉수대를 살펴 볼 당시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Percival Lowell 1886, 93-99). 이 자료와 내용은

같지만 명암이 다른 사진이 ‘Group of Korean boys on the edge of a steep hill in the center of Seoul’이라는 설명과 함께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²²⁾

17) 225 : Boats by shore, Korea



‘물가의 배들, 조선’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인 초량 포구를 촬영한 것이다. 초량의 포구에는 좌우 두 개의 방파제가 있었는데 이 자료 속의 방파제는 왼쪽 방파제이다. 이 자료를 촬영한 장소

는 현재의 ‘부산테파트주상복합건물’에 해당된다. 이 자료와 내용은 같지만 명암이 다르게 인화된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²³⁾ 설명문은

21)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crowd-collected-to-witness-the-passing-of-the-king-nricp-relic-no-2883-417771>

22)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group-of-korean-boys-on-the-edge-of-a-steep-hill-in-the-center-of-seoul-nricp-relic-no-2888-417826>

23)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korean-boats-at-pusan-nricp-relic-no-2887-417777>

‘Korean Boats at the Port of Japanese Concession in Pusan, Korea’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18) x245 : Korean waterway with hills in background



‘배경에 언덕이 있는 조선의 수로’라는 설명의 이 자료는 현재의 마포구 마포동 벽산빌라 자리에 있었던 담담정(淡淡亭)(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2, 341-342)에서 현재의 흑석동 방향을 촬영한 것이다. 자료의 좌측 중앙에서 길게 뻗어 나온 검은색 지형은 새남터 즉, 현재의 용산구 이촌동이고, 그 뒤의 짙게 보이는 능선은 현재의 국립현충원을 감싸고 있는 서달산의 동쪽 능선이다. 이 자료의 유리건판은 분실된 상태이지만, 같은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²⁴⁾

19) x246 : An apothecary's shop



‘약방’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현재의 청계로 또는 을지로 부근에 있었던 약방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표교와 현재의 을지로 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예로부터 약종상들이 밀집되어 있었다.²⁵⁾ 로웰은 『CHOSŌN』에 민가 앞에 하수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랑, 그리고 건물들의 외벽이 이어져 있고 작은 창문들이 처마 밑에 설치된 상점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했다(Percival Lowell 1886, 78, 218). 퍼트남자료관은 이 사진의 유리건판이 분실된 것으로 표

24)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the-river-han-nricp-relic-no-2925-41779>

25) 『중인들의 청계천』 :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heonggye/intro/life4.jsp

시하고 있지만, 필자는 퍼트남자료관에서 이 자료와 내용이 같은 랜턴슬라이드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러므로 이 사진도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같은 내용의 사진²⁶⁾을 복사한 랜턴슬라이드를 스캔한 이미지로 판단된다.

20) x247 : River suburbs of Seoul, a ferry point, "Mapo," across the Han River



‘서울 교외의 강가마을, 한강을 건너는 “마포” 나루’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18) x245’와 함께 현재의 마포구 마포동 벽산빌라 자리에 있었던 담담정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인데, 서쪽이라기보다는 북서방향의 풍경을 촬

영한 것이다. 원경에 현재 절두산 성당이 위치한 잠두봉이 보인다. 이 자료 역시 유리건판은 분실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랜턴슬라이드의 존재는 필자가 확인했다. 또한, 이 자료와 내용이 같은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²⁷⁾ 그러므로 이 자료 역시 랜턴슬라이드를 스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자료의 설명문에서 ‘River suburbs of Seoul’은 『CHOSŎN』에 수록된 사진설명문과 같지만,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의 설명문(The River Han taken from a hill above the main ferry looking West)과는 다르다. 그리고 로웰은 “Mapo”라는 지명을 기술한 적이 없으므로 이 자료의 설명문은 아키비스트가 『CHOSŎN』의 내용과 한국에 대한 지식을 종합해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26)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apothecary-shop-nricp-relic-no-2904-417793>

27)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the-river-han-taken-from-a-hill-above-the-main-ferry-looking-west-nricp-relic-no-2891-417800>

21) x248 : The Colonel and Sa Kwan. The Colonel was appointed to look after Lowell during his time in Seoul. The Colonel was head of the household and in charge of the Treasury. The Sa Kwan, a title, was a secretary in the Foreign Office



‘무관과 사관. 무관은 로웰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로웰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이 무관은 로웰의 거처에 관한 잡무를 관리했다. 사관은 외무부의 사무관이다.’라는 설명의 이 자료는 최경석(崔景錫, ?~1886)과 이시렴을 촬영한 것이다. 최경석은 보

빙사의 종사관으로 활동한 인물인데, 보빙사 임무를 마친 뒤에는 조선 최초의 농무목축시험장(農務牧蓄試驗場)을 개설·운영했다(김원모 1997, 194-197). 이시렴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 이후, 외아문) 소속의 관원으로서 로웰의 서울생활을 돌봐줬기 때문에 로웰은 『CHOSŌN』의 서문에 특별히 이시렴에게 감사의 뜻을 남겼다. 이시렴은 로웰이 조선을 떠난 뒤에 민영익과 함께 조선에 도착한 포크(George Clayton Foulk, 1884~1887)의 서울생활도 돌보았다. 그래서인지 이시렴은 포크가 촬영한 사진에도 주사(Chusa)라는 직함으로 세 번 씩이나 등장한다.²⁸⁾ 그러나, 외아문에 사관이라는 직함은 존재하지 않았고 주사명단에서 이시렴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무관으로서의 최경석의 업무는 로웰의 경호였고 로웰 거처의 잡무는 이시렴이 관리했을 것이므로, 이 자료의 설명문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자료 역시 유리건판이 분실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필자가 랜턴슬라이드의 존재는 확인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좌우가 바뀌어 있고, 보스턴미술관에 같은 내용의 사진이 소장되어 있으므로,²⁹⁾ 이 자료는 보스

28) <https://collections.lib.uwm.edu/digital/collection/agsphoto/id/188/rec/24>

29)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korean-gentleman-nricp-relic-no-2926-417788>

턴미술관에 소장된 사진과 같은 사진을 복사하여 랜턴슬라이드를 만든 뒤에 랜턴슬라이드를 뒤집어서 스캔한 것으로 추정된다.

22) x249 : A military hat shop



‘군모(軍帽) 가게’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군모를 파는 상점을 촬영한 것이다. 현재 이 자료를 촬영한 장소의 비정은 불가하지만 종로 거리에 있던 시전상점 중의 하나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웰은 이 모자 가게의 상인이 지붕에 모자를 얹어 놓는 전시방식에 감탄을 했던 상황을 『CHOSŌN』에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Percival Lowell 1886, 342-343).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된 내용과 화각이 같은 사진의 설명문은 ‘지붕과 길가에 요령 있게 전시된 모자들’이라고 되어 있다.³⁰⁾ 이 자료도 유리건판이 분실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의 랜턴슬라이드가 존재함을 필자가 확인했다. 이 자료는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된 사진과 같은 사진을 복사하여 랜턴슬라이드로 만든 뒤에 스캔한 이미지로 추정된다.

23) x294 : Percival Lowell and friends in Korea



‘조선에서의 퍼시발 로웰과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이 랜턴슬라이드 속의 인물들이 로웰과 친구들이라는 것은 맞지만, 조선에서 촬영된 사진은 아니고 일본의 도쿄에서 촬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아키비스트가 잘못 분류한 것이다. 이 랜턴슬라이드에

30)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hat-shop-in-the-street-seoul-hats-judiciously-exposed-to-view-on-the-roof-and-in-the-street-nricp-relic-no-2921-417814>

보이는 로웰의 친구들은 조선을 방문한 적이 없다. 슬라이드 속의 왼 쪽에서 오른 쪽으로 비겔로우(William Sturgis Begelow, 1850~1926), 페놀로사(Ernest F. Fenollosa, 1853~1908) 그리고 로웰이다. 비겔로우와 페놀로사는 훗날 일본예술 전문가들이 되었다.

24) x250 : The Foreign Office



‘외무부’라는 설명의 이 자료는 외아문의 관원들을 촬영한 것이다. 중앙의 사모 관대를 갖춘 인물이 독판(督辦) 민영목(閔泳穆, 1826~1884)이고, 그 오른쪽은 김홍집(金弘集, 1842~1896), 그 오른쪽이 홍영식이다. 이 자료의 유리건판은 분실된 상태이지만, 그 내용이 같은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³¹⁾

25) x251 : The fragrant Iris, a Korean geisha



‘향기로운 붓꽃, 조선의 게이샤’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로웰이 윤치호 등과 화계사에 놀러갔을 때 동행한 기생을 화계사 입구에서 촬영한 것이다. ‘The fragrant Iris’는 계손향(溪蓀香)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기생의 이름으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다. 어쩌면 로웰이 난(蘭)을 붓꽃으로 통역 받았을 수도 있고 실제로 난초가 iris로 번역되기도 하므로 이 기생의 이름은 ‘향란(香蘭)일 가능성이 높다. 이 자료도 유리건판은 분실된 상태이지만, 필자가 램턴슬라이드의 존재를 확인했다. 자료의 좌우가 바뀐 채로 게시되어 있으므로, 내용

31)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his-excellancies-the-ministers-and-vice-ministers-of-foreign-affairs-nricp-relic-no-2913-417815>

이 같은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³²⁾과 같은 사진을 복사하여 만든 랜턴슬라이드를 스캔한 이미지일 것이다.

26) x253 : His Majesty, the King of Korea, Ko jung



‘조선의 국왕전하, 고종’이란 제목의 이 자료는 최초로 촬영된 고종의 사진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서 ‘7) 1010’과 같은 날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로웰은 이 사진을 『CHOSŎN』의 초판본 전면 사진으로 수록했다. 이것 역시 유리건판은 분

실되었지만, 랜턴슬라이드는 존재하며, 내용이 같은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므로,³³⁾ 랜턴슬라이드를 스캔한 이미지일 것이다.

27) x254 : Beyond the northeast gate of Seoul



‘서울의 북동문 건너편’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혜화문 문루에서 현재의 동소문로에 해당되는 길 주변을 촬영한 것이다. 이 자료의 유리건판은 분실되었지만, 내용이 같은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³⁴⁾

28) x255 : On the piazza of the summer palace

‘하궁(夏宮)의 난간에서’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경복궁의 경회루 2층의 북서쪽 구석에서 북서방향의 풍경을 촬영한 것이다. 로웰은 경복궁을 구궁

32)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singing-girl-the-fragrant-iris-nricp-relic-no-2922-417812>

33)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his-majesty-the-king-of-korea-nricp-relic-no-2893-417825>

34)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to-the-northeast-of-seoul-view-from-a-gate-of-the-citys-wall-nricp-relic-no-2881-417770>



(舊宮), 경회루를 하궁(夏宮)이라고 기술했다. 일제시대에 철거된 태원전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사진 왼쪽에 보인다. 이 자료의 유리건판은 분실되었지만, 같은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³⁵⁾

29) x256 : In the Valley of the Clothes-Washing



‘옷의 계곡에서-세탁’이란 제목의 이 자료는 로웰이 세검정계곡에 갔을 때 세검정 맞은편의 민가를 촬영한 것이다. 로웰이 세검정 계곡을 찾아간 이유 중 하나는 종이공장을 보고자함이었다. 세검정 지역은 조선시대에 조지서(造紙署)가 있었던 곳이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2, 342-343). 그러나 로웰은 종이공장을 찾지 못하고 빨래하는 여인들과 바위에 널린 빨래만 보고 돌아왔다(Percival Lowell 1886, 307-315). 이 자료도 유리건판은 분실되고 사진만 남아 있다.

30) x257 : A rice shop in Seoul



‘서울의 쌀가게’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29) x256’과 마찬가지로 로웰이 세검정에 갔을 때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의 내용을 살펴보면 쌀가게라기보다는 농가마당에 곡식을 말리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진

35)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view-from-balcony-of-the-summer-palace-in-the-old-palace-grounds-seoul-nricp-relic-no-2909-417776>

도 유리건판은 분실되었지만, 같은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³⁶⁾

31) x258 : Korean men with loaded bulls in Seoul in front of the Hong Sal Mun or Red Arrow gate An outer portal to the gates of the city



‘도시의 대문을 향한 바깥쪽 진입문인 홍살문 또는 붉은 화살문 앞의 조선인 남자와 짐을 진 황소’이라는 설명의 이 자료는 현재의 중구 수표로 저동빌딩 앞에서 종로방향을 바라보며 촬영한 것이다. ‘outer portal to the gates of the city’라는 설명은 아키비스트가

홍살문에 대한 지식 없이 지어낸 것이다. 이 홍살문은 현재의 중부경찰서 자리에 있었던 영희전(永禧殿)의 홍살문이다. 로웰은 조선의 홍살문과 일본 도리이(鳥居)의 유사성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CHOSŌN』에 그 특징을 자세히 묘사하고(Percival Lowell 1886, 262-267), 미국의 학술지에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Percival Lowell 1885, 438-440). 이 자료도 유리건판은 분실되었지만, 필자가 랜턴슬라이드의 존재는 확인했고, 같은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있으므로³⁷⁾, 랜턴슬라이드를 스캔한 이미지로 추정된다.

32) x259 : In the main street of Seoul

‘서울의 주요 도로에서’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종로의 대나무상점을 촬영한 것이다. 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좌측 뒤편에 기와를 얹은 정식 건물

36)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grain-shop-seoul-nricp-relic-no-2866-417822>

37)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street-scene-torii-approaching-a-royal-building-nricp-relic-no-2906-417797>



이 있고 그 앞에 초가를 엮은 가건물을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웰은 종로의 상가들이 저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를 『CHOSON』에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Percival Lowell 1886, 78-79). 즉, 종로시전상가의 옥

외 가건물들은 왕의 행차가 있을 때에는 철거되었다가 곧 바로 다시 지어 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건물들이 늘어나 종로거리를 좁게 만들자 한 관리가 강제철거 명령을 내린 적도 있었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의해서 취소되었다고 한다. 로웰은 상가의 가건물에 얽힌 이 이야기를 전제정치체제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보여준 놀라운 저항정신이라고 평가했다. 이 자료 역시 유리건판은 분실되었지만, 같은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³⁸⁾

33) x260 : The pillars of the palace of summer “Kyung whoi ru” in the “Kyung pok gung”



“경복궁”의 하궁(夏宮)인 “경회루”의 기둥들이라는 제목의 이 사진은 경복궁의 경회루 입구를 촬영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 있는 아키비스트가 설명을 추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퍼트남자료관의 목록에는 이 자료의 유리건판이 분실되었다는 것만 표시하고, 필

자가 확인한 랜턴슬라이드의 존재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는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있으므로³⁹⁾, 이 자료는 랜턴

38)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views-of-main-street-seoul-nricp-relic-no-2895-41798>

39)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interior-of-the-so-called-summer-palace-in-the-old-palace-seoul-nricp-relic-no-2890-417774>

슬라이드를 스캔한 이미지인 것으로 사료된다.

34) x261 : The lotus pond of the palace of summer



‘하궁(夏宮)의 연못’이라는 설명의 이 자료는 경복궁의 경회루 입구를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촬영한 것이다. 오른쪽의 담장은 일제시대에 철거되었다가 현재는 복원되었지만, 복원된 담장은 이 자료 속의 담장과 약간 다른 모습이다. 이 자료 역시 유리건판의 분

실만 표시되어 있고 필자가 확인한 랜턴슬라이드의 존재는 표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있으므로⁴⁰⁾, 이 사진은 랜턴슬라이드를 스캔한 이미지일 것이다.

35) x262 : Morning in the old palace grounds



‘구궁(舊宮) 정원의 아침’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경복궁의 신무문 앞의 영회문(현재는 검표소) 앞에서 경회루 방향을 바라보며 촬영한 것이다. 좌측 담장의 문은 광림문이고 전면의 문은 유형문이다. 이 사진

의 제목은 『CHOSŌN』에 수록된 사진제목과 동일한 것이다. 로웰은 ‘어느 화창한 겨울날’에 경복궁을 구경하러 갔던 경험을 『CHOSŌN』에 상세하게 기술했다(Percival Lowell 1886, 289-294). 퍼트남자료관은 이 자료의 유리건판이 분실되었다고만 표시하고 있지만, 랜턴슬라이드도 존재함을 필자가 확인했다.

40)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exterior-of-the-so-called-summer-palace-in-the-old-palace-seoul-nricp-relic-no-2905-417782>

36) x263 : Korean man standing in garden



‘정원의 조선 남자’라는 제목의 이 사자료는 로웰과 많은 대화를 나눴던 수학자 김낙집을 촬영한 것이다. 김낙집은 로웰의 건강을 염려하여 약을 지어 줄 정도로 로웰의 거처를 자주 방문했다(Percival Lowell 1886, 386-387).

이 자료 속의 배경은 로웰의 거처의 정원으로 추정된다. 로웰은 김낙집과의 학문적 대화를 바탕으로 하여 마방진(魔方陣)에 대한 이야기를 『CHOSŎN』에 한 장(章)에 걸쳐서 기술했다(Percival Lowell 1886, 250-261).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낙집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자료의 유리건판은 분실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필자는 퍼트남자료관에서 인화된 사진과 함께 랜턴슬라이드도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인화된 사진과 비교할 때 좌우가 바뀌어 있다. 그러므로 이 자료 역시 랜턴슬라이드를 스캔한 이미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37) x264 : Audience Hall of the Old Palace of Seoul



‘서울의 구궁(舊宮)의 국왕의 집무실’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촬영한 것이다. 로웰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고종은 창덕궁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경복궁은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근정전 앞 품계석이 있는 곳에 잡초가 자라기 시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이다.

이 자료도 유리건판은 분실된 것으로 표시되었고, 필자가 랜턴슬라이드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좌우가 바뀌어 있으므로, 랜턴슬라이드를 뒤집어 스캔한 이미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38) x265 : Outside the old palace wall around Seoul, looking towards Nam San



‘서울 주변 구궁(舊宮)의 궁장(宮庄) 바깥 풍경, 남산을 바라보며’라는 설명의 이 자료는 경복궁의 건춘문과 동십자각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이 자료는 좌우가 바뀌었다. 또한, ‘around Seoul’이라는 설명은 아키비스트가 경복궁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된 동일한 내용의 사진에 대한 설명은 ‘View of the outer wall of the Old Palace, Seoul’로 바르게 되어 있다.⁴¹⁾

자료 속 원경의 산능선은 남산자락이고 오른쪽 중학천 가에 솟을 대문이 있는 건물은 한성부 북부 관아이다. 이 사진은 북부 관아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사진이다.

이 사진도 유리건판은 분실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필자는 랜턴슬라이드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자료 역시 랜턴슬라이드를 뒤집어서 스캔한 이미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39) x266 : In the New Palace grounds



‘신궁(新宮)의 정원에서’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창덕궁 후원에 위치한 소요정과 취규정의 모습을 옥류천 위에서 촬영한 것이다. 이 자료도 유리건판은 분실되었지만, 같은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⁴²⁾

41)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exterior-of-the-so-called-summer-palace-in-the-old-palace-seoul-nricp-relic-no-2905-417782>

42)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summer-garden-in-the-new-summer-palace-seoul-nricp-relic-no-2919-417787>

40) x267 : Pavilion “Se gum jung” in the valley of Clothes A place with clean water



‘물 맑은 옷의 계곡의 “세검정” 정자’라는 설명의 이 사진자료는 세검정을 촬영한 것으로서, 앞의 ‘29) x256’을 촬영할 때 같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29) x256’은 세검정의 반대 방향을 촬영한 것이다.

종이공장을 보러 갔던 로웰은 계곡의 바위마다 하얀 빨래가 널려져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흥미로워 했는데(Percival Lowell 1886, 310-311), 이 사진 속의 세검정 뒤 오른쪽 바위널에도 널려있는 빨래가 보인다. 로웰은 세검정을 정자가 아닌 절(temple)로 보았다(Percival Lowell 1886, 310). 아마도 세검정 뒤의 부속건물과 세검정에 얽힌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진의 유리건판은 분실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1) x268 : A street market in one of the principal streets in Seoul, a nut vendor



‘서울의 한 주요 도로의 노점, 견과류 장사’라는 설명의 이 사진자료는 배경의 북악산 능선을 이용하여 비정한 결과 현재의 ‘종각역’ 근처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웰은 『CHOSŌN』에 이 사진의 가판대에 놓인 밤, 호두, 잣 등의 전시모

습과 가격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했다(Percival Lowell 1886, 221-222). 이 사진의 설명문을 작성한 아키비스트는 『CHOSŌN』의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진의 유리건판은 분실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⁴³⁾

42) x295 : ?



설명을 ‘?’로 표기한 이 자료는 경복궁 안에서 현무문과 북악산을 촬영한 것인데 좌우가 바뀐 이미지이다. 이 자료는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된 랜턴슬라이드를 뒤집어 스캔한 이미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이미지와 동일한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⁴⁴⁾

43) 1011 : The Crown Prince of Korea, Soon jong, became the last King of Korea



‘조선의 왕세자, 훗날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이 되었다’는 설명의 이 자료는 창덕궁의 농수정 계단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앞의 ‘8) 1012’와 연속으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 왕세자의 부산함이 느껴지는 사진이다.

44) x293 : A rural village outside of Seoul



‘서울 바깥의 시골마을’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앞의 ‘18) x245’와 같이 현재의 마포구 마포동 벽산빌라 자리에 있었던 담담정에서 현재의 아현동 방향을 바라보고 촬영한 것이다. 검은 언덕은 현재의 염리동과 공덕동에 해당하는데, 좌측 아래 현재 동도중·고등학교 자리에 흥선대원군의 말년 거처였던 아소정이 보인다(서울특별시사편찬

43)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street-scene-in-seoul-nricp-relic-no-2896-417817>

44)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north-gateway-of-old-palace-grounds-and-north-hill-seoul-nricp-relic-no-2910-417773>

위원회 2012, 519-520). 이 사진은 랜턴슬라이드인데, 같은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⁴⁵⁾

45) x292 : Buddhist Monks from the Flower Stream Temple



‘화계사의 스님들’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앞의 ‘14) v222’를 촬영할 때 같이 촬영한 것으로, 저 합장하는 모습이 『CHOSŎN』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Percival Lowell 1886, 374). 당시의 스님들의 복장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스님들 뒤의 건물은 현

재 보화루(寶華樓)로 개축되었고, 목어는 나무가 박리되어 깡마른 모습으로 새로 지은 고루에 법고와 함께 걸려있다. 이 자료도 랜턴슬라이드를 뒤집어 스캔한 것이기 때문에 좌우가 바뀌어 있다.

46) x291 : Hang ju san sung, a mountain top fortress outside of Seoul



‘서울 바깥의 산정요새인 행주산성’이라는 설명의 이 자료는 행주산성이 아니라, 돈의문 바깥인 현재의 강북삼성병원 앞 송월길에서 북서쪽을 촬영한 것이다.

이 자료도 랜턴슬라이드를 뒤집어 스캔한 이미지가기 때문에 좌우가 바뀌어 있다. 이

이미지와 같은 내용의 사진이 ‘도성 바깥(Outside the city wall, Seoul)’이라는 제목과 함께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⁴⁶⁾

45)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suburbs-of-seoul-the-city-lies-over-the-hills-to-the-right-nricp-relic-no-2915-417781>

46)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outside-the-city-wall-seoul-nricp-relic-no-2880-417769>

47) x290 : ?



아키비스트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설명을 ‘?’로 표기한 이 자료는 주조미국공사 푸트의 개인 비서인 스커더(C. S. Scudder)(McCune and Harrison 1951, 5)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역관인 윤치호(尹致昊, 1865~1945)를 촬영한 것이다. 현존하는 윤치호의 사진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의 형태는 랜턴 슬라이드이다.

48) x288 : Korean army or guards?



‘조선의 군인 또는 경비대?’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1881년에 창설된 조선의 신식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을 촬영한 것이다. 별기군이 촬영된 최초의 사진이다. 이 사진은 창덕궁 초입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촬영장소를 제대로 비정하지는 못했다. 이 자료의 형태는 랜턴슬라이드이다.

49) x287 : The fragrant Iris with ? Are they at the Flower Stream Temple?



‘향기로운 붓꽃과 함께? 화계사에서서의 모습인가?’라는 설명의 이 사진의 설명으로 판단하건데 이 자료에 대한 로웰의 설명이 남아 있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것은 로웰이 화계사에 놀러 갔을 둘째 날 오후에 촬영한 것인데(Percival Lowell 1886, 374), 사진을 확

대해 보면 향란과 이시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의 형태는 랜턴슬라이드이다. 필자가 건물 기둥에 걸린 주련의 한자와 향란의 옷고름을 살펴보니 좌우가 바뀌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랜턴슬라이드를 뒤집어서 스캔한 이미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50) x286: ?



이 자료는 외아문의 독판(督辦) 민영목(閔泳穆, 1826~1884)을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자료는 랜턴슬라이드를 뒤집어서 스캔한 이미지기 때문에 좌우가 바뀌어 있다. 이것과 같은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⁴⁷⁾

51) x285 : ?



이 자료는 현재의 조선히텔 자리에 있었던 남별궁에 상주해 있던 중국인 관리들을 촬영한 것이다. 남별궁의 내부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진자료이다. 이 자료의 형태는 랜턴슬라이드인데, 내용이 같은 사진이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⁴⁸⁾

52) x284 : ?

이 자료는 홍영식의 가족을 촬영한 것이다. 왼쪽부터 형 홍만식(洪萬植, 1842-190), 아버지 홍순목, 홍영식, 동생 홍정식(洪正植)이다. 그리고 홍만

47)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his-majesty-the-minister-of-foreign-affairs-kim-jon-g-mark-nricp-relic-no-2923-417816>

48)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palace-occupied-by-chinese-commissioners-nricp-relic-no-2902-417803>



식 옆의 아이는 홍만식의 아들로 추정되고 홍순목이 안고 있는 아이는 갑신정변 이후에 홍순목이 함께 자살한 홍영식의 아들로 추정된다. 이 자료의 형태는 랜턴슬라이드인데, 같은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⁴⁹⁾

53) x283 : ?



이 자료는 랜턴슬라이드를 스캔한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와 같은 내용의 사진이 ‘조선인 일본어 통역관(Korean Interpreters into Japanese)’이라는 제목과 함께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⁵⁰⁾ 로웰은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에 이미 일본어를 꽤 하고 있었고 영어

통역 겸 비서인 일본인 미야오카(宮岡恒次郎, 1865~1943)를 대동했기 때문에, 당시에 영어통역이 거의 전무했던 조선정부는 로웰에게 일본어 통역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4) x281 : A shop keeper in Seoul



‘서울의 상점 주인’이라는 설명의 이 사진 자료 속의 남자는 ‘상점 주인’이 아닌 로웰의 일본인 요리사이다. 홍영식은 서울에 장기간 체류할 로웰을 위해서 일본에서 서양요리를 할 줄 아는 요리사를 고용해 왔다. 이 요리사

49)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their-highness-the-prime-minister-his-sons-and-grandsons-nricp-relic-no-2924-417827>

50)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korean-interpreters-into-japanese-nricp-relic-no-2899-417785>

는 로웰이 조선을 떠날 때 동행하지 않고 조선에 서양식 식당을 개점하기 위해서 조선에 남았다(Percival Lowell 1886, 83). 이 사진자료도 랜턴슬라이드를 뒤집어 스캔한 좌우가 바뀐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와 같은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⁵¹⁾

55) x280 : The Crown Prince of Korea, Soon Jung



‘조선의 왕세자 순종’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로웰이 촬영했을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이 자료는 또 다른 고종의 사진과 함께 지운영(池運永, 1851~1935)⁵²⁾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최인진 2010, 42).

이 사진자료도 랜턴슬라이드를 뒤집어서 스캔한 이미지이므로 좌우가 바뀌어 있다. 필자의 연구결과, 이 랜턴슬라이드는 로웰의 촬영한 사진들과는 다른 재질의 인화지에 인화한 사진을 복사하여 만든 것으로 분석되었다.⁵³⁾

56) x278 : Percival Lowell and his local household staff



‘퍼시발 로웰과 그의 서울 거처의 시종들’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로웰의 거처에서 촬영된 것이다. 로웰은 입경한 뒤 외아문이 제공한 관저에 머물렀다. 이 집은 로웰이 ‘이 관저의 마지막 소유자는 당시 조선의 총

51)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my-japanese-cook-dressed-in-korean-clothes-in-a-corner-of-a-narrow-street-nricp-relic-no-2872-417810>

52) 1882년 수신사 일행으로서 일본방문 중 사진술을 익히고 돌아와서 조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고종과 왕세자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기록된 인물이다.

53) 분석결과는 『현대사진영상학회 논문집』, 2019, VOL.20-3호에 게재예정인 필자의 「최초의 고종 여사전에 대한 고찰」에 정리되어 있다.

아(the present court favorite) 민 씨였다(Percival Lowell 1886, 81)'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민영익의 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운데 앉아있는 로웰 오른쪽에는 이시럼이, 로웰의 왼쪽에는 최경석, 그 왼쪽에 로웰의 일본인 비서 미야오카(宮剛恒次郎, 1865~1943)가 앉아 있고, 그 왼쪽에는 한복을 입은 로웰의 요리사가 서 있다. 이 자료는 랜턴슬라이드를 뒤집어 스캔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좌우가 바뀌어 있다.

57) x277 : ?



랜턴슬라이드인 이 자료는 로웰의 거처에서 일하는 시종 소년이 비누방울을 부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로웰은 이 사진을 촬영할 당시의 상황을 막내 여동생인 에이미(Amy Lowell, 1874~1925)에게 보낸 편지에 자세히 묘사했다(Percival Lowell 1884). 이 랜턴슬라이드와 같은 내용의 사진이 ‘비눗방울을 부는 소년(Boy blowing soap bubbles)’이라는 제목과 함께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⁵⁴⁾

58) x276 : Pavilion in the middle of Seoul main palace “Kyung pok gung”



서울의 주궁(主宮)인 “경복궁”의 중앙에 있는 정자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경복궁의 경회루와 경회지를 촬영한 것이다. 로웰은 경복궁을 ‘Old Palace, 구궁(舊宮)’으로 경회루는 ‘Summer Palace, 하궁(夏宮)’으로 기술했는데 (Percival Lowell 1886, 289-298), 설명에는

54)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boy-blowing-soap-bubbles-nricp-relic-no-2885-417807>

‘main palace’로 기술한 것을 보면 아키비스트가 한국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설명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는 랜턴슬라이드를 스캔한 것이고, 보스턴미술관에 같은 내용의 사진이 ‘연못과 함께 있는 하궁(夏宮)의 한 쪽 귀퉁이(A corner of the summer palace with lotus pond)’라는 설명과 함께 소장되어 있다.⁵⁵⁾

59) x275 : ?



이 자료는 ‘20) x247’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마포구 마포동 벽산빌라 자리에 있었던 담담정에서 현재의 여의도를 바라보고 촬영한 것이다. 왼쪽 갯모양의 길은 언덕은 양말산으로서 현재는 국회의사당이 위치해 있다. 오른쪽의 넓은 샷갯모양의 산은 계양산이다.

로웰은 사진 속의 모래밭을 지나던 상황을 『CHOSON』에 생생하게 묘사했다(Percival Lowell 1886, 68). 랜턴슬라이드인 이 사진자료와 같은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⁵⁶⁾

60) x274 : ? (It appears the man is holding a bow)



‘(남자가 활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의 이 자료는 도성 안쪽에서 혜화문과 활쏘기 연습을 하는 사람을 함께 촬영한 것인데, 좌우가 바뀌어 있다. 랜턴슬라이드인 이 자료와 같은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

55)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a-corner-of-the-summer-palace-with-lotus-pond-nr-icp-relic-no-2869-417813>

56)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main-ferry-across-the-river-han-on-the-road-from-chemulpo-to-seoul-ice-just-breaking-in-march-nr-icp-relic-no-2897-417801>

에 소장되어 있다.⁵⁷⁾ 그러므로 이 자료는 랜턴슬라이드를 뒤집어 스캔한 이미지로 추정된다.

61) x273 : The Fragrant Iris, a Korean "geisha"



‘향기로운 붓꽃, 조선의 “게이샤”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앞의 ‘25) x251’과 같은 날 촬영한 것이다. 현재의 화계사 입구 교차로에서 동쪽으로 오패산을 바라보며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른쪽의 낮은 언덕은 초안산이고 왼쪽 원경의 흐릿한 두 봉우리는 각각 수락산과 불암산이다. 랜턴슬라이드인 이 사진자료와 같은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⁵⁸⁾

62) x272 : Hut in middle of field...? protecting something?



‘무엇인가를 보호하고 있는... 들판의 움막?’이라는 설명의 이 사진자료는 초분(草墳)을 촬영한 사진을 랜턴슬라이드로 제작한 것이다. 한반도의 남부지방에서만 행해지던 장례문화인 초분이 경기지방에서도 행해졌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진자료이다. 필자가 취재한 화계사의 선덕 견향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스님께서 화계사에서 현재 강남의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때때로 초분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아마도 로웰이 화계사로 놀러갈 때 혜화문과

57)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northeast-gate-of-the-city-wall-from-within-seoul-n-ricp-relic-no-2876-417767>

58)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singing-girl-the-fragrant-iris-nricp-relic-no-2877-417818>

화계사 사이의 길가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63) x271 : Main gate of the old palace, "Kwang wha mun"



‘구궁(舊宮)의 대문, “광화문”이라는 설명의 이 자료는 경복궁의 광화문을 남산 방향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만든 랜턴슬라이드를 스캔한 이미지이다. 랜턴슬라이드를 뒤집어 스캔한 것이어서 이미지의 좌우가 바뀌어 있다.

이 사진자료 역시 아키비스트가 조선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이 사진을 촬영한 위치에서 볼 수 없는 남산 능선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64) x270 : Pagoda?



‘탑?’이라는 설명의 이 자료는 현재의 종로 탐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석탑을 촬영한 것이다. 탑의 상층부는 무너져 기단 옆에 떨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고 대신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다. 로웰이 이 탑을 촬영할 당시에는 탑이 민가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조차

어려웠다. 이 때문에 로웰은 근처 민가 지붕에 올라가서 석탑을 촬영했는데 그 때의 상황을 『CHOSŌN』에 자세히 묘사했다(Percival Lowell 1886, 187-188).

65) x269 : The Crown Prince of Korea, Soon Jung

‘조선의 왕세자, 순종’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앞의 ‘7) 1010 ~ 9) 1013’의 자료들처럼 창덕궁의 농수정에서 왕세자를 촬영한 것이다. 이것은 3월 10일이 아닌 13일에 촬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3월 10일의 상황과는 다



르게 차분한 모습의 왕세자를 볼 수 있다. 설 명문의 'Soon Jung'을 'Soon Jong'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좌측 상단의 검은 부분은 유리 건판이 깨져 사라진 부분이다. 이 랜턴슬라이드와 같은 내용의 사진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⁵⁹⁾

66) 0035 : Percival Lowell with the first Korean diplomatic delegation to the US, 1883



‘퍼시발 로웰과 조선의 대미외교사절단, 1883’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보빙사의 구성원 모두가 담긴 것이다. 좌측에 앉아 있는 인물이 로웰, 그 오른쪽으로 홍영식, 민영익, 서광범, 우리탕 (吳禮堂, 1843~1912)이며, 사진 왼쪽에 서 있는 인물이 현흥택 (玄興澤, ?~?), 그 오른쪽으로 미

야오카, 유길준(俞吉濬, 1866~1914), 최경석, 고영철(高永喆, 1863~?), 변수 (邊燧, 1861~1892)이다.

이 사진은 유리건판의 크기가 다른 사진자료와 다르게 5인치 × 7인치 인 것으로 판단하건데, 로웰이 촬영한 것은 아니고 일본 또는 미국의 사진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진자료의 청구번호 ‘0035’는 앞의 ‘1) 0035’와 청구번호가 같다. 그런데 웹사이트에서 ‘japan’으로 검색하면 로웰이 일본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목록에 이 사진자료가 청구번호 ‘0036a’로 나타난다. 퍼트남자료관의 자료정리와 분류에 실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9)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the-crown-prince-of-korea-nripic-relic-no-2874-417809>

67) 2013.5821 : Lowell Observatory



‘로웰 천문대’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상세설명에 ‘Trustee Bill Putnam and Mr. Sakashita on the dock at Anamitsu, South Korea, ca. 1990’라고 되어있다. 이 천연색 사진은 로웰방문 기념비가 세워진 일본의 노토(能登)반도의 아나미즈(穴水)에서 촬영된 사진을 아키비스트가 실수로 ‘korea’ 항목에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4.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된 로웰의 조선관련 사진 아카이브의 문제점

로웰천문대의 퍼트남자료관이 온라인으로 게시하는 사진자료들 중에 로웰과 조선이 관련된 것은 모두 64개 인데, 이 64개 자료에는 일본에서 촬영된 것 3장이 잘못 분류·추가되어 있다. 또한 64개의 사진자료들 중에 2개는 일본에 관련된 사진자료 항목에도 중복·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추정하건데 아키비스트들이 사진자료를 분류할 당시에 조선에 관련된 사진자료들과 일본에 관련된 사진자료들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4개의 사진자료 중에서 15개는 5인치 × 8인치 크기의 음화유리건판이 있으면서 인화된 사진도 있는 것이고, 2개는 5인치 × 7인치 크기의 음화유리건판이 있으면서 인화된 사진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23개는 음화유리건판이 분실되어 인화된 사진만 존재하는 것이고, 22개⁶⁰⁾는 랜턴슬라이드의 형태로 소장되어 있다. 또한, 40개는 내용이 같은 사진들이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60) 필자가 퍼트남자료관에서 확인한 결과 38장이 존재한다.

퍼트남자료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자료들 중에서 12개는 좌우가 바뀌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랜턴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인화하거나 스캔 이미지를 만들 때, 실수로 랜턴슬라이드를 뒤집어서 인화하거나 스캔한 결과 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진 이미지의 파일 형식을 살펴보면, 사진을 스캔한 것은 gif 형식이고, 랜턴슬라이드를 스캔한 것은 jpg 형식이다. 이것은 두 종류의 사진자료의 디지털이미지화 작업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기자재를 이용해서 수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자료에 대한 설명문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설명문을 작성하지 못한 것이 8개, 설명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물음표가 첨가된 것이 5개,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과 같은 내용의 사진임에도 물음표 표시가 되어 있거나 전혀 다른 설명문이 작성된 것들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설명문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진의 내용과 전혀 다른 설명, 『CHOSŌN』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설명, 한국의 역사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작성한 설명, 그리고 보빙사와 조선의 지명에 대한 약간의 연구를 하고 작성한 설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하건데, 사진자료에 대한 설명을 로웰이 남기지 않았거나, 로웰이 작성한 사진자료에 대한 설명이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있는 사진자료에 대한 설명문의 작성은 최소한 4명 이상의 작성자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일부분의 자료들에 대해서만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5. 맺음말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한국의 사진사에 있어서 최초이자 유일한 것들이기에 모두가 귀중한 사료이며, 그 속에 담긴 내용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연구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진과 관련

된 자료들의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는 퍼트남자료관은 사진자료에 대한 연구와 관리·보존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자료들은 오류가 많은 설명과 함께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로웰의 저서 『CHOSŌN』과 로웰의 서간문을 그리고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로웰의 사진 설명문 등을 분석한 뒤,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의 촬영장소와 대상을 비정하여 퍼트남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에 관련된 사진자료와 관련된 정보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사진자료에 관련된 설명문의 오류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차후에 이 연구결과를 퍼트남자료관에 알려서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자료들에 대한 퍼트남자료관의 분류상의 오류와 설명문의 오류를 개선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원모. 1997. 유미 보선보빙사 수원 최경석·오례당·로우웰 연구, 『동양학』, 27, 193-225.
- 정영진. 2019. 최초의 고종 어사진에 대한 고찰, 『현대사진영상학회 논문집』, 20-3.
- 권행가. 2005. 고종의 초상,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원모, 정성길. 1997. 사진으로 본 백년 전의 한국: 근대 한국(1871-1910), 서울: 가톨릭출판사.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0. 서울의 산,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2. 서울의 누정,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송병기. 2001. 국역 윤치호 일기 1,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조경철. 1986. 고요한 아침의 나라, 서울: 대광문화사.
- 조경철. 2001.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서울: 예담.
- 최인진. 2010. 고종 어사진을 통해 세계를 꿈꾸다, 서울: 문현.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McCune, G. M. and Harrison, J. A., 1951.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I, 5.
- Percival Lowell, 1885. THE HONG SAL MUN, OR THE RED ARROW GATE, SCIENCE, V. 121, 438-440.

Percival Lowell, 1886. CHOSŎN, THE LAND OF MORNING CALM, A SKETCH OF KOREA, Boston : Ticknor and Company.

Percival Lowell, 1884. Letter to Amy Lowell, Tokio, Apr. 4, '84, bMs Lowell 19(761), The Houghton Library.